

초임 섬 발령에 관사 배정 배려없어... 여교사 '불안한 나날들'

집 / 중 / 점 / 검
위태로운 도서벽지 근무
현직 여교사가 본 섬 근무 실태

그때 생각하면 끔찍
지금도 트라우마 시달려

재발령으로 다시 간 관사
20년전과 달라진 것 없어

CCTV 설치했다고
보안 대책 될 수는 없어

학부모들 그릇된 문화 교육당국 인사시스템 등 복합적 작용으로 빚어져

현직 여교사들은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젊은 여교사를 대하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문화, 교육당국의 인사시스템, 여교사에 대한 배려없는 관사배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젊은 여교사들을 열악한 근무지

에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고 도서 지역 등 오지에서 생활하는 여교사를 위한 상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남지역에서 근무하는 50대 중반의 여교사 A씨는 30여 년 전 초임지에서 겪었던 사건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1980년대 후반 초임지로 발령받은 장흥의 한 학교에서 평생을 따라다니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A씨는 "당시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려는데, 내부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동료와 함께 주인집으로 달려간 적이 있다"며 "한 학생이 갑을 들고 숙소에서 기

다리고 있었는데 마을 남성들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 먼저 학생을 들여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도 학부모나 도시지역 주민들이 젊은 여교사를 선생님으로 보지않고 여성으로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최근 동료교사들과 대화 도중 아직도 도서지역 등 오지로 갈수록 학부모들이 교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성적인 농담도 서슴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여교사는 섬지역 고립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생

활한다는 것 자체가 젊은 여교사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40대 후반의 여교사 B씨는 "몇 년 전 도시 신안의 한 도서지역 분교로 가게됐는데, 관사 등 20여 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놀랐다"며 "여교사들은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섬의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교사 C씨(50대 초반)는 "최근 도서지역 가산점이 줄면서 경력교사들이 섬 근무를 선호하지 않아 신규 임용된 교사들이 섬으로 발령받는 상황"이라며 "외딴 곳에

서 생활하는 여교사들을 위해 관사 앞에 CCTV가 있다고는 하지만 24시간 감시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안대책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어전히 일부 섬에서는 관사 배치가 전편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0대 후반의 여교사 D씨는 "섬 학교에서는 관사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위치 등 선택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전임자가 썼던 공간을 후임자가 사용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교사들은 도서지역에서 생활하는 여교사들을 위한 고층처리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E씨(50대 중반)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젊은 여교사들의 고충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섬 등 오지에서 일하는 여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을 위한 상

담 등 고층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면 사전에 많은 사건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일보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그동안 사건 발생 장소를 '전남의 한 섬'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는 특정지역을 발원 경우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보다는 이미지 타격으로 그 지역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익명의 의미가 사라진 반면 전남 섬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자부터는 사건 발생지인 신안을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전남 섬 이미지 손상되면 어찌나”

휴가철 섬 주민 근심도 커져 이장단·주민자치위는 사과문

신안 섬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여파가 피서철을 앞두고 전남 섬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접한 네티즌 등이 신안뿐 아니라 전남지역 섬 주민들의 생활 등 전반적인 문화를 깎아내리고, 심지어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 찍는 등 섬에 대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신안군청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글들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섬 관광특수를 기대하는 섬 마을 주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신안 주민 최모(49)씨는 "염전노예 사건에 이어 여교사 성폭행 사건까지 터지면서 신안 전체가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것 같다"며 "아름다운 섬의 이미지가 손상돼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남도가 섬 활성화를 꾀하려고 2년 전부터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이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8개 섬을 선정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모두 24개의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

할 계획이다.
급기야는 또 다른 피해자인 주민들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신안군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8일 사과문을 내고 "일부 주민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 교사의 심신 상처가 이른 시일 안에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기자 silee@

보건진료소·읍면 출장소 여직원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

도서지역 보안 대책 취약 대부분이 근무 꺼려

도서지역 여교사와 함께 보건진료소 간호사, 우체국 직원 등 섬에서 홀로 생활하는 인력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직 공무원들은 직업의 특성상 여성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외딴섬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들도 도서지역 여교사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를 제외한 보건진료소 13개소와 보건진료소 23개소가 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읍·면의 섬에 위치한 보

건진료소와 달리 작은 섬에 있는 보건진료소 23개소에는 모두 여성 간호직 공무원들이 1명씩만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의 특성상 배편으로 출·퇴근이 힘들어 보건진료소 내에서 생활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마련된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사 등 환경도 열악하다는 게 근무했던 여성 간호직 공무원들의 설명으로, 보안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섬지역 읍·면 출장소와 우체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신안의 읍·면 출장소 9개소에는 대부분 소장 1명과 무기계약직 직원 1명 등 모두 2명이 일하고 있고, 전남의 도서지역에 위치한 30여개소의 우체국에도 3~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출장소 건물 2층이나 인근에 마련된

관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지역 보건진료소나 읍·면 출장소, 우체국은 섬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한 치안, 배타적인 문화 등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근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건직 여성 공무원은 "혼자서 보건진료소의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섬에 갇혀 있다는 생각과 홀로 건물에서 생활해야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보건진료소나 읍·면 출장소의 환경과 근무여건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



가정폭력 예방 동참하세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8일 여성진급전환1336 광주센터와 공동으로 금남로 지하상가 일대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여성가족부는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인 '보라데이'로 정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피의자들 최고 무기징역 적용 검토

경찰, '여교사 성폭행' 준강간→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경찰이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박모(49)씨 등 3명의 혐의를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당초 식당 주인이자 학부모인 박씨의 경우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유사강간 혐의

를, 현장에서 DNA가 검출된 이모(34)씨와 김모(38)씨에게는 순차적으로 관사에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3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진단을 받았고, 피의자들의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혐의 변경 적용 여부를 결정해 송치할 방침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말 조형물 절도 범인은 만취 30대

○~결혼을 앞두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구경 앞에 설치돼 있는 수백만원 상당의 '말' 조형물을 뺏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
○~8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송모(30)씨는 지난 5일 밤 11시55분경 광주 북구보건소 인근 교통신호에 설치돼 있는 말바우시장을 상징하는 말 조형물(40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자수했다는 것.
○~송씨는 사건 당일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보건소 인근을 지나다가 말 조형물을 발견하고 이를 뺏아 자신의 차에 실었는데, 송씨는 경찰에서 "다음날 차량 트렁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말 조형물이 차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 2개, 방 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50만!!

▣ 매가 → 6억 8천만 (융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저권, 가정법원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 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p>▣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p> <p>→ 토 90평, 건 364평 → 운전역 분거리, 8m도로 접 → 달방수익 1,000만 예상</p> <p>▣ 감정가 12억 5천 - 최저가 5억 5천</p>	<p>▣ 장성 삼서 (의료시설)</p> <p>→ 토 3492평, 건 1734평 → 상무대 입구, 병원 직영 최적합 → 전 요양병원 운영</p> <p>▣ 감정가 48억 - 최저가 27억</p>
<p>▣ 장성 삼서 (3층 상가 건물)</p> <p>→ 토 367평, 건 990평 → 1층(식당)2층(사무실) 2층~3층 (주차장) → 상무대 아파트 앞, 식당 밀집지역</p> <p>▣ 감정가 15억 - 최저가 4억 3천</p>	<p>▣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p> <p>→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원비</p> <p>▣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5천</p>
<p>▣ 북구 연제동 (상가주택)</p> <p>→ 토 84평, 건 155평 → 새한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p> <p>▣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p>	<p>▣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p> <p>→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 사무실) → 재석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p> <p>▣ 감정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p>

062-511-7800 010-6670-9800